

북미서 유럽으로 ... 글로벌 ETF '머니무브'

한풀 꺾인 美 ETF 열풍

북미 ETF 매수, 2주 연속 감소
순유입액 32조서 4.4조로 줄어
서유럽 ETF는 4배 늘어 4.6조

트럼프 관세로 변동성 커지자
리스크 적은 유럽으로 피신

지난해까지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주도한 미국 주식형 ETF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더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유럽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18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EPRF에 따르면 북미 ETF의 글로벌 매수세가 2주일 연속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마지막주(1월 23~29일) 224억6800만달러(약 32조4280억원)에 달한 순유입액은 이달 첫째주 52억7500만달러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주엔 30억6800만달러로 줄었다. 자금 유입세가 불과 2주일 만에 86.34% 쪼그라들었다. 올 초까지 2년 내림 가팔랐던 북미 시장이 주춤하며 전체 주식형 ETF로 유입된



자금은 같은 기간 286억2700만달러에서 40억800만달러로 급감했다.

반면 서유럽 주식형 ETF는 신규 자금을 빨아들었다. 지난달 마지막주 7억3400만달러인 순유입액은 2주일 만에 32억600만달러로 네 배 넘게 급증해 북미 순유입액마저 추월했다.

글로벌 투자자가 북미 대신 유럽 주식형 ETF로 빠르게 갈아타는 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 정책에 불안한 느린 투자자가 위험 요인인 적은 유럽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나온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북미 투자에 대한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월 기준 CPI는 전달 대비 0.5%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높

아는 물가는 현재 연 4.5%인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박승진 하나금융 리서치센터 해외주식분석실장은 "연초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많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었지만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약화될수록 가장 큰 요인"이라며 "변동성 부담이 덜한 유럽으로 돈이 흘러가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딥시크 공개 이후 중국 시장이 반등한 점도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유럽 증시에 호재"라고 덧붙였다.

같은 안전자산을 기초로 삼는 ETF도 인기다. 뉴욕증시의 대표적 인덱스인 'SPDR 골드 섀어즈(티커명 GLD)'는 15일 266.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불과 1개월 만에 7% 넘게 올랐다. 뉴욕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 선물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인 트로이온스당 2900달러를 돌파했다.

EPRF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귀금속 펀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5주일 연속 실물 금에 투자하는 펀드에 글로벌 자금이 순유입됐다. 작년 3분기 이후 최후방 유입세"라고 설명했다.

윤지은 기자

한국+대만 IT株 ETF서 韓 기업 비중 확 줄었다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韓 비중 34% → 4년새 15% 급감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대표 기업을 함께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국내 기업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 반도체산업이 대만에 뒤처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18일 상장지수펀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ETF에서 한국 기업의 구성 비중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기업 비중은 66%에 달했다. 이 상품은 2017년 한국거래소와 대만증권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한국대만IT프리미어' 지수를 기초로 한다. 2018년엔 이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증권(ETN)이 유입 증시에 상장됐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비중이 18.74%로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SK하이닉스는 7.91%를 차지했다. 대만엔 TSMC가 20.36%로 비중이 가장 컸다. 반도체 설계 회사인 미디어텍이 7.44%, 초하이정밀공업(폭스콘)

이 6.55%로 그 뒤를 이었다. 구성 종목 수로는 한국 기업 비중이 더 높았다. 54개 기업 중 한국 회사는 11개에 그쳤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네이버 크래프톤 SK텔레콤 하이브 등 소프트웨어, 엔터, 통신 종목이 많았다. 대만은 ASE(후광정) UMC(파운드리) 등 시총액 20조~3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반영된 것이다.

이 ETF에서 한국 IT 기업 구성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21년 2월만 해도 한국 기업 비중은 48.9%로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3년 42.6%로 떨어진 뒤 지난해 36.4%, 올해 34%로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구성 종목 비중이 19%였지만 2022년부터 TSMC에 자리를 내줬다. 이 ETF가 구성 종목 등을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글로벌 기관인 S&P DJI가 연 2회 리밸런싱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AI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만이 메모리 중심의 한국과 격차를 벌였다"고 말했다. 박찬진 기자

한화에어로, 거침없는 '무한 질주'

11% 급등 64만원 - 연일 최고가
추가 수출 기대에 매수세 몰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거침없이 뛰어오르고 있다. 추가 수출 기대가 커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279,000 → 643,000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보다 11.44% 급등한 64만3000원에 마치고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2일 50만 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4거래일 만에 60만 원 선을 넘었다. 시가총액은 이 기간 22조 원대에서 23조 원대로 6조 원 넘게 불었다. 이날 들어 추가 상승률은 60.73%에 달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 실적과 함께 추가 수출 기대가 증가'를 받아 올랐다. 미국 S&P500 지수 상승률(8.96%)을 압도한다. 이날도 코스피 지수는 0.63% 오른 2626.81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째 상승했다. 한 자신용용사 대표는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과 반산조선 등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에 힘입어 기세를 중심으로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며 "코스피지수가 1분기 2700선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 기자

이날 소식도 주가에 호재가 됐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할당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가성비', 빠른 생산 능력을 갖춘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들어 KB증권(50만원~60만원) 삼성증권(49만원~64만원) 키움증권(45만원~65만원) 미래에셋증권(48만원~67만원), 한국투자증권(63만원~65만원) 유진투자증권(44만원~60만원)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표적주가를 상향했다. 실적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 시각도 있으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양승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추가 주주 기회가 많다"고 평가했다. 류은혁 기자

'미래에셋 창업 공신' 손동식 사장 사임

작년부터 이어진 세대교체 일환

작년부터 이어진 미래에셋의 세대교체 차원이다. 앞서 창업 멤버인 최현만 전 회장, 조용진 전 부회장, 최경주 전 부

회장 등이 잇달아 물러났다. 손 동 시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창업 이듬해인 1998년 합류해 '박현주 펀드' 등을 공동 운용했다.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주식운용부총괄 대표를 지냈다. 펀드 운용에서도 완전한 손을 뗀 뒤 고문으로 남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행정규자

잘나가는 K증시 ... 거래량, 8개월 만에 최대치 찍었다

코스피지수가 2600선을 탈환한 가운데 국내 증시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급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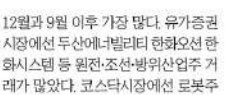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증시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13억8607만 주로 나타났다. 작년 6월(15억1469만 주) 후 가장 많은 수치다. 거래량은 작년 10월 12억6618만 주로 떨어진 뒤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13억4374만 주), 지난달(13억6310만 주)에 이어 석달째 상승했다. 거래량은 매매단 주시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

거두어 달해
저가 매수 몰리며 석달째
코스피·코스닥 상승세 지속 전망

거물수급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량이 급감한 작년 하반기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극심했다. 하지만 올 들어 국내 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량은 시장 구분 없이 고루 늘고 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 하루평균 거래량은 4억6717만 주, 코스닥시장은 9억1816만 주를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가 두드러졌다.
증시 주도주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며 저가 매수 몰리며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는 9.47% 올랐다. 미국 S&P500 지수 상승률(8.96%)을 압도한다. 이날도 코스피 지수는 0.63% 오른 2626.81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째 상승했다. 한 자신용용사 대표는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과 반산조선 등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에 힘입어 기세를 중심으로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며 "코스피지수가 1분기 2700선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과 9월 이후 가장 많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원전·조선·병위산업주 거래가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선 로봇주



트럼프 수혜株 골라담은 RISE ETF 2중 상승

미국 주요 은행주에 투자하는 RISE 미국 은행TOP10 등 5개 상장지수펀드(ETF)가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이날 'RISE 미국은행TOP10'과 'RISE 테슬라미카체타켓캐비드콜론(합성)'을 상장했다. 두 ETF 모두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한 지수 산출 기관인

美 은행 톱10-테슬라 커버드콜 미국소비트렌드 ETF도 출시

한국경제신문사의 KEDI 지수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미국 은행주는 '트럼프 2.0' 시대 대표적 수혜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

프 미국 행정부가 전일 정부에서 강화된 금융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RISE 미국은행TOP10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피코,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모건스탠리, PNC 등 미국 대형 은행주를 주로 편입했다. RISE 테슬라미카체타켓캐비드콜론(합성)은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 테슬

라와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혼합해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 연 15% 수준의 배급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TIGER 미국소비트렌드메타브'를 상장했다. 급변하는 미국 소비 시장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채광원 ETF인 'SOL 증권(회사채 A-I)상'과 'ACE FTSE WGBI Korea'도 같은 날 출시됐다. 행정규자

마켓인사이트

M&A부터 IPO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1등 자본시장 미디어

marketinsight.hankyung.com